

‘열정’ 광주, 6위 선전…‘투혼’ 전남, 원정 최고 7위 쾌거

제45회 전국장애인체전…광주·전남 장애인체육 무한 가능성을 보

광주…양궁, 종목 종합우승 2연패·FC엔젤 대회 2연패 유종의미
전남…전남카누, 4번째 종목 종합우승·육상 황상준 3관왕 ‘기염’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투혼을 발휘하며 선전을 펼친 광주전남 선수단이 종합순위 6, 7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종목 종합 준우승을 차지한 전남 론볼.

6일간 부산에서 펼쳐진 스포츠 대축제에서 광주·전남선수단은 장애를 넘어 뜨거운 열정으로 깊은 울림을 남겼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혼과 집념은 광주·전남 장애인체육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감동의 여정으로 기록됐다.

광주선수단은 3관왕 9명을 비롯해 한국신기록 12개, 한국 타이기록 1개, 대회신기록 6개를 작성했다.

금메달 6개, 은메달 68개, 동메달 57개로 종합점수 11만9천928점을 획득한 광주는 종합 6위를 차지했다.

전통 ‘효자 종목’ 양궁은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며 5천936.40점으로 서울(6천257점)을 제치고 2연 연속 종목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김홍필과 윤태성이 컴파운드 남자 더블에서, 김란숙과 이승준이 리커브 혼성에서, 백승욱이 컴파운드 1라운드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윤태성이 컴파운드 개인종합과 남자라운드 합계에서, 김란숙이 컴파운드 여자 1라운드에서 각각 은메달을 따냈다.

이밖에 권유나가 컴파운드 여자 1라운드에서, 권유나와 윤태성이 컴파운드 혼성에서, 김란숙이 리커브 여자 개인종합과 라운드합계에서 값진 동메달을 보태며 광주 장애인양궁의 명예를 드높였다.

보치아와 배구는 종목 종합순위 3위를 기록했다.

보치아 국가대표 강선희(한전KPS)·신철인(우미건설)이 혼성 2인조(페어) BC3에서, 김소인(광주장애인보치아연맹), 정동석(광주장애인보치아연맹), 나미숙(한국알프스)이 혼성 2인조(페어) BC4(선수부)에서 각각 금메달을 합작했다.

은메달 2개와 동메달 2개를 따내며 종합득점 4천40점을 획득한 광주 당구는 2010년 첫 출전 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광주선수단 선전에 힘을 보탤다.

지적촉구팀 FC광주엔젤은 결승에서 서울을 3대0으로 꺾고 통산 11번째 우승이자 대회 2연패로 대미를 장식했다.

전남선수단은 대회 원정 사상 최고 점수와 최고 성적을 달성했다.

전남은 금메달 44개, 은메달 54개, 동메달 57개를 획득, 종합득점 10만5천928점으로 종합 7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카누 여자 VL3 200m에 출전한 손영숙(한국전력공사)이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 여자 카약 200m 스피리트 KL 2(선수부)에서 금메달을 따낸 손영숙은 대회 2



대회 마지막 날 금메달로 유종의미를 거둔 지적촉구 광주FC엔젤팀.

〈광주장애인체육회 제공〉

관왕에 올랐다.

남자 VL2 200m 김광현(전남장애인카누연맹)과 남자 VL3 200m 신경문(녹색에너지연구원)도 각각 은메달을 획득하며 전남 카누의 저력을 입증했다.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를 획득한 전남 카누는 4번째 종목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육상에서는 전남 장애인 육상 간판스타 황상준(한국농어촌공사)이 남자 10km 마라톤 DB(선수부)에서 22분 24초 98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 테이프를 끊었다.

앞서 남자 1,500m DB(선수부)와 5,000m DB(선수부)에서 두 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황상준은 대회 3관왕을 차지했다.

배드민턴에서는 국가대표 유수영(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남자 단식 WH2(선수부)와 진기범(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출전한 남자 복식 WH1·WH2(선수부) 경기에서 각각 금메달을 차지하며 대회 4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윤복자·윤남순(한전KPS), 황은순(한국농어촌공사)이 팀을 이룬 론볼은 B7 여자 3인조에서 금메달을 합작했다. 전남 론볼은 종목 종합 준



종목 종합우승 2연패를 달성한 효자 종목 광주 양궁선수단이 안형승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감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승을 차지했다.

탁구 혼성 복식 채금종합14(스탠딩, 선수부)에 출전한 이창식(한전KDN)·고희영(한국농어촌공사)도 금메달을 합작하며 전남선수단 선전에 한몫했다.

마지막 날 금메달에 도전했던 여자좌식배구는 충남과 폴세트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으나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다. /박희홍기자

유현조, 역대 13번째 3관왕 도전

KLPGA 투어 최종전 내일 개막…홍정민·방신실·이예원, 4승 각축

2025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최종전인 대보 하우스디 챔피언십이 7일부터 파주 서원힐스 컨트리클럽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상금 순위 상위 57명과 아마추어 3명을 합쳐 60명의 선수가 출전해 마지막 우승 트로피를 놓고 경쟁한다.

2025 KLPGA 개인 타이틀은 이번 대회를 통해 모두 확정된다.

위메이드 대상 포인트는 유현조(681포인트)가 1위를 확정했으나 상금왕, 신인상, 최저타수상, 다승왕은 안갯속이다.

유현조는 역대 13번째 3관왕을 노린다.

그는 올 시즌 상금 12억6천985만2천481만원 을 기록하며 이 부문 3위를 달린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2억5천만원, 준우승 상금은 9천600만원이 걸려있어서 상금 1위 홍정민(13억2천682만3천334원), 2위 노승희(13억1천447만9천754원)를 제치고 상금 순위 1위에 오를 수 있다.

유현조는 평균타수(69.8913타)에서도 홍정민(70.1410타), 방신실(70.1463타)을 제치고 1위를 달린다.

유현조는 이번 대회를 10오버파 이하로 마치



유현조의 티샷

〈KLPGA 제공〉

면 2021시즌 장하나에 이어 4년 만에 60타대 최저타수상을 차지할 수 있다.

아울러 유현조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2022년 김수지가 세운 역대 한 시즌 최고 대상 포인트(760포인트) 기록도 갱신한다.

다승왕도 이번 대회를 통해 결정된다.

홍정민과 방신실, 이예원은 나란히 올 시즌 3승을 거뒀다.

5월까지 3승을 쓸어 담은 뒤 슬럼프에 빠진 신인상은 서교림(1천354포인트), 김시현(1천88포인트)이 경쟁한다. /연합뉴스



왼쪽부터 양현종, 최형우, 박찬호, 조상우, 이준영, 한승택

〈KIA 타이거즈 제공〉

KIA 양현종·최형우 등 FA 자격 선수 공시

KIA, 6명 ‘최다’

KBO가 5일 2026년 FA(자유계약선수) 자격 선수 명단을 공시했다.

올해 FA 자격 선수는 총 30명이며, 이 가운데 KIA 타이거즈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KIA의 내부 FA 명단은 최형우, 양현종, 박찬호, 조상우, 이준영, 한승택 등이다.

최형우와 양현종은 팀의 상징이자 베테랑 핵심으로, 상징성과 기록면에서 구단이 놓칠 수 없는 선수들이다.

박찬호는 내야 수비와 주루의 핵심 전력으로, 잔류 여부가 내년 팀 전력 구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박찬호는 이번 FA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며, 그의 시장 가치와 거취가 최대 관심사다.

트레이드로 합류한 조상우와 이준영은 불펜 전력의 핵심 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승택은 경험 많은 포수 자원이다.

FA 등급 별로는 A 등급 7명, B 등급 13명, C 등급 10명이다.

이 중 처음 FA 자격을 얻은 선수가 13명, 재자격 선수는 11명, 이미 FA 자격을 취득했지만 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는 6명이다.

구단별로는 KIA(6명)가 가장 많고, 삼성·KT·두산이 각각 4명, LG·한화·롯데가 3명, SSG·NC·키움은 각각 1명씩 공시됐다.

또한, 비FA 다년 계약 체결 선수 및 기존 F

A 선수 중 계약 기간 연장 옵션 발동 등으로 FA 자격 요건을 신규 취득 또는 재취득했으나 올해 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FA계약 유보선수’ 14명도 함께 공시했다.

이에 해당 선수는 2026년 FA 자격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며, FA 자격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해까지 유보된다.

2026년 FA 자격 선수는 공시 후 2일 이내인 오는 7일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KBO는 신청 마감 다음 날인 8일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을 FA 승인 선수로 공시할 예정이다.

FA 승인 선수는 공시 다음날인 9일부터 모든 구단(해의 구단 포함)과 선수 계약을 위한 교섭이 가능하다. /주홍철 기자

MLS서 석 달 뒀 손흥민, ‘올해의 신인’ 투표 2위

손흥민(33·LAFC)이 비록 수상은 불발됐지만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에서 고작 석 달을 뒀고도 신인상 투표 2위에 올랐다.

MLS 사무국은 5일 “샌디에이고FC의 미드필더 안데르스 드레이어(27·덴마크)가 2025 MLS 올해의 신인선수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MLS 올해의 신인선수는 MLS에서 프로에 데뷔한 선수들에게 주는 영플레이어상과는 달리 이미 프로 경력은 있으나 MLS에서는 처음 뒀던 이적 선수들을 대상으로 준다.

수상자는 미디어, 선수, 구단(기술 스태프) 투표로 뽑는다.



손흥민.

/AP=연합뉴스

손흥민은 미디어로부터 7.91%, MLS 선수와 구단 기술 스태프로부터 각각 7.27%와 3.70%의 표를 받아 총 6.30%의 득표율로 2위에 올랐다.

드레이어는 미디어(71.75%), 선수(69.09%), 구단(81.48%)

으로부터 모두 압도적 지지를 받아 총 74.11%의 득표율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연합뉴스